

고대 다자이후를 발굴

다자이후는 과거 행정과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지였습니다. 이 지역은 아시아 대륙과의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했으며 새로운 사상 및 문화 발전의 거점이었습니다. 그러나 12 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지배권이 무사와 다이묘(영주)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, 다자이후의 영향력은 약해졌습니다. 지난 50 년간 발굴 조사를 통해 고대 다자이후의 규모가 밝혀졌으며, 고고학의 발굴 장소 및 항공 사진을 보면 다자이후의 과거 설계 및 구성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발굴 조사 후에는 유구를 보호하고자 땅을 메우고 풀로 덮은 후, 아래에 유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. 이처럼 발굴 조사 후에 실시되는 과정에는 자연 경관 보전과 이 곳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. 유구 중 일부는 이 배수 도랑처럼 의도적인 형태로 남겨둡니다. 이 도랑은 8 세기 초기의 것으로 생각되며, 도랑이 있었던 본래의 장소에 전시관을 세워 보존하고 있습니다.

아울러 중앙의 커다란 바위는 건물의 기둥을 지지했던 초석입니다. 이 바위는 현재의 상태로 출토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발견한 것을 옮겨 전시하고 있습니다.

이 박물관은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자이후의 다채로운 유산과 일본의 역사 속 다자이후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프로젝트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